

'남부지방 가뭄' 해 넘겨 지속 전망 예정

최근 6개월 남부지방 강수량 평년 56~71% "내년 1월까지 강수량 평년과 비슷·적을 것" 일부 도서·산간 지역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

정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농업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9일 공동 발표한 '1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09mm)은 평년의 86.6%이다.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평년의 56~71%에 그치고 있다.

내년 1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남부지방 기상가뭄은 다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11월은 평년 30.7~55.1mm보다 적고, 12월(평년 19.8~28.6mm)과 내년 1월(평년 17.4~26.8mm)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은 평년의 96.8%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남·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78%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강수 부족으로 배추·무·마늘·양파 등 밭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도 영농 대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하천수를 활용한 물 채우기 등 저수율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및 용수댐(14곳) 저수율은 예년의 99%, 93% 수준이다. 다만, 전남의 '주암·수어·평림댐'은 저수율이 낮아 댐 관리기준 심각단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 댐 공급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중구·옹진, 전남 진도·완도, 경북 안동, 경남 통영 등 3070세대, 5078명이 대상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가뭄 지역에서는 물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정부에서는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댐·저수지 저수량 관리 및 밭가뭄 지역에 대한 선제적 급수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동부소방,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는 이달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홍보에 나섰다 밝혔다.

이슬비기자



화순소방,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화순소방서(서장 이종희)는 9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경찰, 보이스피싱 범인을 신고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 전달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객을 신고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실시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여수공업고등학교, 종교중학교 정문에서 교육지원청 및 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나주 금성지구대, 자전거 절도 예방 맞춤형 시책 추진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대장 김진희)는 연말까지 절도 예방 특별방범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완도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성공적으로 활동 마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연안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운영한 '연안안전지킴이'가 연안해역 순찰과 안전지도 등 사고예방에 큰 힘을 보태며 올해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청년노동자 사망, 재해법 적용·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광주 노동단체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 안이함 처벌받아야"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정문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디케이㈜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A(25)씨의 친형이 발언하고 있다. 디케이㈜에서는 지난 7일 오후 철제 코일을 옮기던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났다.

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디케이㈜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 A(25)씨를 애도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본부는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안이함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디케이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 2152억원, 직원 773명을 둔 광주의 대기업"이라며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 포장됐음에도 최저 임급

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숨진 A씨는 형에게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픈데 쉬지 못하고 있다'며 꾸짖었지만, 이는 유서와도 같았다"며 "A씨가 숨진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공장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 화물차들이 물류를

나르기 위해 바빠 오갔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510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해 2분기까지 미약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며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안이함은 사망자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디케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업장을 압수수색,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며 "디케이 또한 유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디케이㈜에서 정규직 노동자 A씨가 철제 코일(1.8t 추정)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느끼고 있다.

맑은 날씨를 보이는 9일 오후 제주대학교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늦가을 경치를

화물차 사망 72%, 적재·하역중 발생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의 약 72%는 사업장 내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17~2021년 화물차 기인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자 사망사고 127건 중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안에서 적재·하역 중 떨어진 화물에 깔리거나 치이는 사고가 91건(71.7%)을 차지했다.

화물 깔림 사고(25건)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3건과 1건이었지만, 2019년 5건→2020년 8건→2021년 8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화물 형태별로 보면 원형 13건, 사각형 7건,

비정형 5건이다.

최근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월에는 강관파이프를 싣던 운송기사가 무너진 파이프 다발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6월에는 운송자가 화물차 컨테이너 문을 열자마자 쏟아진 원단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 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체(철강업·운수업)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자료에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뉴스

자전거 훔쳐 해임된 경찰, 벌금형

퇴근길 관할 근무지에서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 해임된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은 절도 혐의를 받는 A(5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경위로 근무할 당시 화정동 한 주상복합건물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자전거를 자택까지 끌고 가 자물쇠까지 채웠고,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해임됐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장에서 사다리를 훔치다 검거돼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경정계 조치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